

#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대학 추진 '가시화'

### 설명회서 실행계획 공유...2027년 3월 신입생 목표 내년 2월 통합신청서 제출...글로벌대 선정 '전환점'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가 오는 2027년 3월부터 통합대학 신입생 입학 목표로 대학 통합에 속도를 낸다. 9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조선간호대 대강당에서 양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 과정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향후 통합 후의 발전계획을 공유하는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양 대학은 지난해 5월 통합 협약을 체결한 이후 통합에 따른 분석과 이

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조선대와 조선간호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확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양 대학의 통합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 선정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설명회에서는 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일정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됐다. 양 대학은 앞으로 통합 실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통합 후의 교육, 연구, 국제화 및 지역 협력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대 선정과 관련한 전략적 실행 계획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조선대는 이번 통합을 통해 호남지역의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허브대학으로 거듭나려는 계획이다. 대학 구성원들에

게 더욱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뿐 아니라 양 대학의 보건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타 학과와의 벽을 허무는 융복합 교육과 평생 교육을 확대해 대학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반 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통합의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통합 추진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글로벌대 선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내년 2월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7년 3월부터 통합대학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다이지



동신대학교가 나주소방서와 함께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소방관' 관람과 재난대응 교육, 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입학설명회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동신대학교 제공>

## 동신대, 나주소방서와 함께한 특별한 정시 입학설명회 '눈길'

### 재난대응 교육·입학 홍보 병행

동신대학교가 나주소방서와 함께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시 입학설명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11일

까지 지역 8개 고등학교 700여명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영화 '소방관' 관람과 함께 실제 소방관이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입학 정보도 안내한다. 최근 진행된 입학설명회에서는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담은 영화 '소방관'

을 관람하기 전 나주소방서 소방관들이 완강기 사용 방법과 비상상황 대응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 교육을 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시연을 도와준 학생들에게는 소화기를 선물로 제공했다. 동신대학교는 입학전형, 학과, 장학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영화 관람 이후에는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소방관들과의 기념 촬영도 이어졌다. 동신대 방사선학과에 합격한 한 학생은 "입학 전인데도 의미 있는 교육과 영화 관람을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며 "입학 후가 더 기대된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김다이지

## '강해영 활성화 아이디어' 한자리에

### 전남대 문전원, 최근 영암서 여행 콘텐츠 등 발표

전남대학교는 "최근 영암군 가야금산 조기념관에서 강진, 해남, 영암 이른바 '강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행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12개 팀 32명의 대학원생들이 3개월간 현장을 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자원을 조사해 아이

디어와 콘텐츠를 기획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발표된 콘텐츠들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인 데다, 대학원생들이 지역 주민과 협업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성과로 평가됐다. 특히 녹차와 도자기를 체험하며 머

무는 '강해영 티스테이', 시니어 관계 인구프로젝트인 '강해영 인생학교', 청년여행플랫폼인 '강해영 일촌맺기', 신설 예정인 강진역-해남역-영암역을 중심으로 한 '강해영 퍼스널 모빌리티 투어', 미식관광프로그램인 '강해영 미식학교', 주민여행사 '강해영 GO', 이 밖에도 크로스오버 뮤지 페스타 등이 호평 받았다. 전남대 문전원과 강진-해남-영암 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부터 '강해영 프로젝트'를 기획해 공동 관광마케팅

을 펼쳐왔으며, 올해는 국립대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 과제들을 진단하고 대학원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강해영 오픈스쿨 및 로컬에디터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전원은 이번 학기 '지역관광연구(강진견 교수)', '디지털포토그래피세미나(변현진 교수)', '문화경영전략과 리더십(박지현 교수)' 석사과정 수업을 통해 강해영 관광 콘텐츠를 기획했다. /김다이지

## 도교육청, 한글 느린 학생 맞춤형 '아이랑 한글이랑' 학습 플랫폼 개발

### 내년 3월부터 희망 교사 등 대상 원격 활용 연수 추진

전남도교육청이 한글을 깨치지 못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플랫폼 '아이랑 한글이랑'을 개발했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이랑 한글이랑'은 한글 해득이 느린 학습자에게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4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충남도교육청의 '온 시스템'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학생·담당교사 등 실시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구현돼 한글 미해득 진단부터 성장기록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진단 문항은 한국교육원과 협력해 신뢰성을 높였으며, 읽기·쓰기·유창성 3개 유형별 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학생의 한글 해득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이력 관리도 가능하다. 학습 과정에서 학생 정서·심리를 배려한 것도 눈에 띈다. 진단 결과에 따라 향후 학습의 방향성을 안내하는 긍정 평가 방식으로 개선돼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개별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함에 따라 별도 공문으로 처리하던 결과 보고 과정이 생략돼 교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한 '2025 전남교육 주요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아이랑 한글이랑' 개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최근 열린 '2025 전남교육 주요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아이랑 한글이랑' 개발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교사와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원격 활용 연수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미해득 진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추후에는 난독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한글 미해득 학생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 맞춤형 지원할 방침이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개인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며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랑 한글이랑을 통해 탄탄한 전남교육이 실현될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이지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mailto: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